

PI첨단소재, EV 전용 PI 바니쉬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 투자 결정

- ▶ EV 구동모터 권선 절연용 PI 바니쉬 생산설비 증설 투자 결정
- ▶ 세계 최대 규모의 PI 바니쉬 생산능력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3-06-22>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178920)가 3,000톤/년 규모의 EV전용 신규 PI 바니쉬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증설은 PI첨단소재 진천 공장 내에 진행되며, 2024년 8월 양산이 목표다. 증설 완료 후 PI첨단소재의 PI 바니쉬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 600톤 규모의 6배에 달하는 3,600톤 규모로 증가하게 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PI 바니쉬 생산능력을 확보 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신규 증설은 EV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구동모터 내 권선의 절연 코팅 소재로 활용되는 PI 바니쉬 생산 전용 설비인 바, 금번 투자 결정을 통해 PI첨단소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폴리이미드(PI) 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전문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EV 바니쉬 전용 라인으로서 해당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를 통해 생산 효율을 증대시켜 수익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EV 바니쉬 뿐 아니라 EV 배터리 절연용 및 차량전장용 필름 등 모빌리티 용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OLED 디스플레이 기판용 바니쉬의 고객사 인증이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되면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비스마트폰 및 비필름 매출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PI첨단소재는 금번 PI 바니쉬 증설 결정 외에도 활발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PI 필름 9호기와 PI 파우더 성형품 증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해당 증설이 완료될 경우 전세계에서 PI 필름, 바니쉬, 파우더 3대 사업영역의 양산체제를 구축할 첫번째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종합첨단소재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5G, EV,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소재부터 다양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PI첨단소재 한경완 과장 (02-2181-8635)**